

---

일반국민이 궁금해하는

---

청탁금지법

10가지

오

해



국민권익위원회



- 01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?
- 0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?
- 03 “잘 봐 주세요”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?
- 04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?
- 05 공직자에 대한 선물, 5만원까지만 되나요?
- 06 공무원과 회의할 땐,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?
- 07 친구가 공무원인데, 밥 한끼 살 수 없나요?
- 08 돌잔치,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?
- 09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,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?
- 10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, 5만원까지인가요?





# 일반인 사이에 오가는 선물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?

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 
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ex) 일반인 → 일반인 (적용 ×)

일반인 → 공직자 (적용 ○)





#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?

국회의원도 선거로 취임한  
공무원으로서  
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.

지방의원, 교수, 학교 선생님, 기자도  
적용대상입니다.





# “잘 봐 주세요”라는 말도 부정청탁인가요?

단순히 잘 봐달라는 언급만으로  
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

다만 법령에 위반한 업무처리, 비정상적인 공공서비스  
요구 등과 연계되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.

잘 좀  
봐 주세요~





## 오해 4.

# 민원 서류에 청탁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면 처벌되나요?

법령상 절차에 따라 해결을 요청하거나,  
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 
부정청탁이 아닙니다.

ex) 청원법,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





## 오해 5.

# 공직자에 대한 선물, 5만원까지만 되나요?

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 
5만원이 넘는 선물(100만원 내)도  
드릴 수 있습니다.

ex) 유치원 졸업 후 선생님께 선물



국민권익위원회





## 오해 6.

# 공무원과 회의할 땐, 커피도 사면 안되나요?

직무와 관련된 음식은  
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 
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면  
3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ex) 통상적인 업무회의, 간담회 등



국민권익위원회







## ‘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’이란?

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 
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, 부조  
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 
음식물(3만원), 선물(5만원), 경조사비(10만원) 가능

통상적인 업무회의  
간담회, 자문회의 등



목적 인정 O

인·허가신청인, 지도·단속대상자  
입찰 상대방, 고소·고발인 등이  
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



목적 인정 X





## 오해 7.

# 친구가 공무원인데, 밥 한끼 살 수 없나요?

직무와 관련이 없다면

1회 3만원 이상(100만원까지),

관련있다면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직무 관련시에는 사교·의례 목적 내에서 가능



국민권익위원회





## 돌잔치, 환갑 등도 경조사에 해당되나요?

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 
결혼, 장례에 한정되며, 대상은  
본인·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까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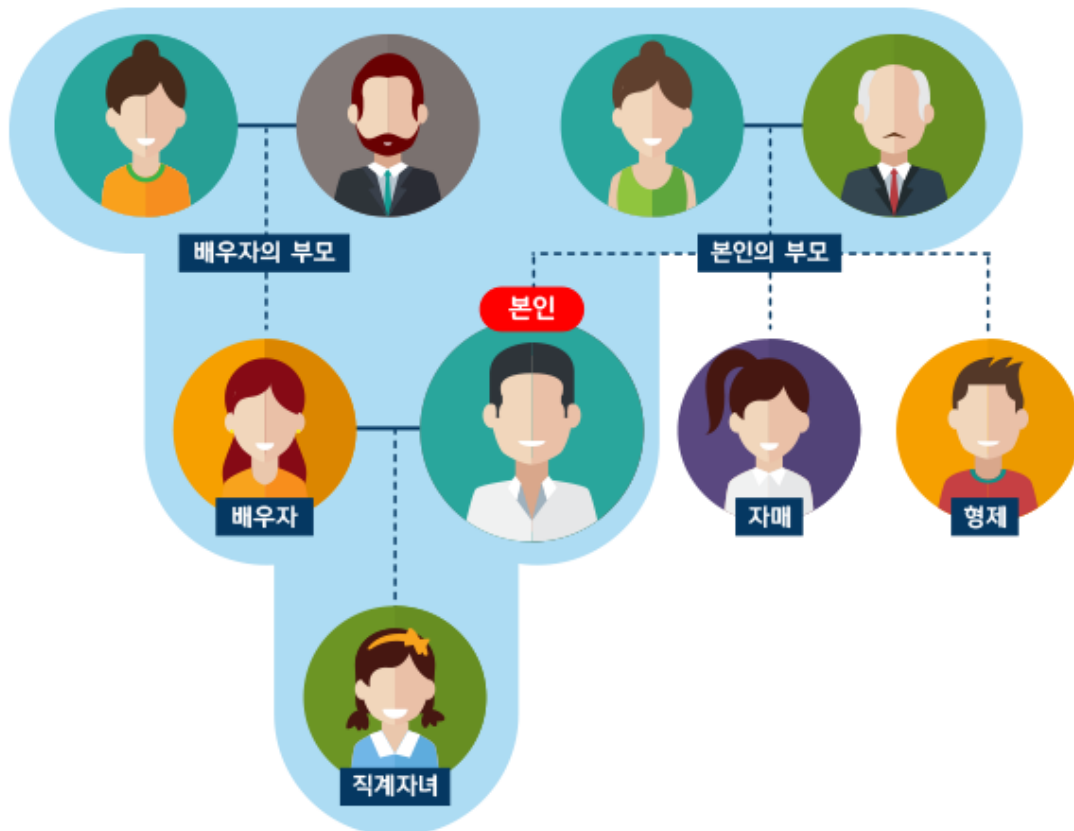
ex) 생일, 돌, 회갑, 승진, 전보, 퇴직 (경조사×)







## 경조사가 허용되는 본인 · 배우자의 직계 존 · 비속 이란?



본인 · 직계비속의 결혼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· 비속의 장례





## 결혼식 손님에 대한 식사, 3만원을 넘기면 안되나요?

전통 규범과 일반 통념상  
사회상규(社會常規)로서  
3만원을 넘어도  
허용될 수 있습니다.







## ‘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’이란?

당사자가 아니라  
사회윤리, 사회통념에 비추어  
용인될 수 있는 금품

결혼식 손님 감사 식사 } 사회상규 O  
적정 수준의 감사패, 공로패

지도단속 경찰관에게 선물 } 사회상규 X  
상급 감독자에게 현금 선물





# 공직자인 이성친구에게 줄 선물, 5만원까지인가요?

친밀도가 높은  
이성친구와 주고받는 선물은  
5만원을 넘어도 허용됩니다.





# 청탁금지법

시민과 함께,  
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